

05-1-13

자연재해 위험도

도쿄 1위·서울 14위

獨 재보험사 보고서

일본의 도쿄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의 거대 도시들은 지진이나 홍수, 테러 등 초대형 재난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전체 50개 도시 중 14위를 기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세계 최대 재보험업체인 독일 뮌헨리는 11일 발표한 '거대도시, 거대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50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수를 산출 평가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 지수는 지진과 해일, 화산폭발, 홍수 등 각종 재해위험도를 4단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높은 지진위험 탓에 167로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로스앤젤레스·마이애미·뉴욕 등 미국의 4개 도시가 10위권 이내에 들었고 ▲오사카 고베 교토권(일본 92.0) ▲홍콩(중국 41.0) ▲마닐라·케손(필리핀 31.0) ▲런던(영국 30.0) ▲파리(프랑스 25.0)도 위험지대로 지목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15로 중국 베이징과 함께 공동14위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열대성 폭풍과 홍수 위험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고 지진·겨울철 국지성 폭풍·천둥번개 및 토네이도 항목에서는 낮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진해일(쓰나미)·화산

■ 세계 주요도시의 자연재해 위험순위 (수치는 위험지수)

1 도쿄(일본)	710.0	11 시카고(미국)	20.0
2 샌프란시스코(미국)	167.0	12 멕시코시티(멕시코)	19.0
3 로스앤젤레스(미국)	100.0	13 워싱턴, 볼티모어(미국)	16.0
4 오사카, 고베, 교토(일본)	92.0	14 서울, 인천(한국)	15.0
5 마이애미(미국)	45.0	14 베이징(중국)	15.0
6 뉴욕(미국)	42.0	16 루르 지역(독일)	14.0
7 홍콩(중국)	41.0	17 상하이(중국)	13.0
8 마닐라, 케손(필리핀)	31.0	18 란트스타트(네덜란드)	12.0
9 런던(영국)	30.0	19 모스크바(러시아)	11.0
10 파리(프랑스)	25.0	20 프랑크푸르트(독일)	9.5

● 위험지수는 지진과 해일 등 각종 재해 가능성을 4단계로 나뉘 평가한 뒤 인구와 면적,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산정 자료= 독일 뮌헨리

계(높음·중간·낮음·없음)로 나눠 인구와 면적, 국내총생산(GDP) 비중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도시의 재해위험도를 지수화해 평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뮌헨리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들이 새로운 차원의 초대형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거대도시들은 모든 고전적 형태의 재해를 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그 위험 노출도에 비해 놀라운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쿄는 위험지수가 710으로 세계에서 재난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진과 열대성 폭풍, 화산 폭발 등 모든 자연재해 항목에서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인구와 경제력 집중도(GDP의 40%)도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폭발·폭풍 해일은 위험도가 전혀 없었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은 0.3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로 꼽혔고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0.7), 이라크의 바그다드(1.3),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1.4), 스페인의 마드리드·인도의 델리(이상 1.5),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이집트의 카이로·독일의 베를린(이상 1.8)도 안전한 편에 속했다.

뮌헨리는 남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 거대도시들에도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와 도시계획자들은 도시화에 따른 재난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춘열 기자

cljoo@segye.com